



관리 2. 지역보건

KSPM-41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Association of Personality Typology and Smoking in High School Students

황태윤¹⁾, 강복수¹⁾, 이경수¹⁾, 박중서¹⁾, 이미숙²⁾

(1)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2)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목적: 일부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며, 성격유형과 흡연경험 및 현재 흡연여부와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구지역의 남자고등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 달간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각 반의 대표를 통해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이 불완전한 34명을 제외한 44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흡연 행태, 스트레스, 그리고 성격특성 관련 설문 등이었다. 스트레스의 측정은 BEPSI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성격유형은 한국판 Eysenck 성격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SPSS ver.12.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χ^2 -test, t-test 및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인문계 남자고등학생이 220명,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이 228명이었으며, 주관적인 학교성적은 인문계의 경우 중상위권, 실업계의 경우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았으며($p<0.01$), 인문계의 경우 학교생활에 불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실업계에 비하여 많았다($p<0.01$). 양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인문계는 94.9%, 실업계는 83.8%였고($p<0.01$). 형제자매 중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인문계 95.4%, 실업계 72.5%였으며($p<0.01$), 주위 친구들이 모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인문계는 3.6%, 실업계는 16.7%였다($p<0.01$)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인문계는 69.2%, 실업계는 30.7%였으며, 현재 흡연율은 인문계 9.5%, 실업계 56.6%였다($p<0.01$). 실업계의 경우 흡연 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는 14.39점이었으며, 비흡연 학생은 13.45점이었다. 흡연경험 및 현재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성격 유형은 외향성 경향, 신경증적 경향, 정신병적 경향이었으며, 허위성 경향은 반대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외향성 경향, 신경증적 경향, 정신병적 경향 등 3 가지의 성격유형의 점수가 높은 군에 속하였던 개수가 한 가지 이상일 때 실업계 학생들의 흡연 경험률과 현재 흡연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p<0.01$).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계열, 부모흡연, 형제자매 흡연, 친구흡연이 현재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은 외향적 경향과 정신병적 경향이 현재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흡연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친구의 금연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외향성 경향, 신경증적 경향,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의 3 가지 성격유형 중에서 2 가지 이상의 성격유형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흡연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들 성격 유형이 강한 학생들을 흡연예방교육의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을 받는 흡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조기 흡연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성격유형 중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향성 경향, 신경증적 경향, 정신병적 경향을 가진 학생과 이러한 성격유형을 2개 이상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KSPM-99

유방암 선별 촬영술의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Screening Mammography in Korean Women

박민수¹⁾, 안형식²⁾, 윤석준²⁾, 김윤³⁾, 도영경³⁾, 이상일⁴⁾, 조민우⁴⁾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4)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유방암은 한국여성에서 아주 흔한 암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의 조기진단방법으로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자가검진, 의사촉진등이 있으며 이중 유방촬영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 나라에 비해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방암선별촬영술의 시작 및 종료연령, 시행간격등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유방암은 미국등의 서구국가에 비해 전반적인 발생율이 낮고 40대에 일찍 호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방암 선별검사의 방안은 외국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규명할 국내의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선별촬영술의 시작연령, 종료연령, 시행간격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려고 한다.

방법: 연령 40세부터 검진에 참여하는 가상적인 코호트를 구축한다. 유방암 선별 촬영술 시작연령은 40세 및 50세 두 군으로 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시 평균기대여명이 여자의 경우 76.6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코호트가 80세에 도달하기까지 Markov 모델을 사용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하였다. 유방암의 유병율, 진행암의 5년 및 10년 생존율, 각 건강상태간의 이동확률, 유방촬영술의 민감도와 특이도 등의 임상자료와 검사 및 치료비용, 위양성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자료등의 변수를 수집하고 추정한다. 연구설계상 코호트를 이용한 경시적 관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며 효과로는 증가한 생존기간을 이용한다.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비용-효과비는 생존기간을 1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나타내며 월/열등전략을 제시한다. 변수별 추정치와 할